**기독교 장례 예식**

**부활의 증인**

“최후의 원수”(*고전 15:20*)라 불리는 죽음 앞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그 믿음을 선포함에 도전을 마주한다. 그 가운데 기독교 장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다. 애통한 자들의 슬픔, 외로움, 절망, 그리고 혼란은 삶의 덧없음과 죽음이라는 누구도 도망칠 수 없는 마지막을 상기시켜준다.

최근 들어 교회는, 세례로 시작되며 주님의 성찬을 통하여 지속되어진 믿음의 삶의 완성이라는 의미 안에서 장례 예식을 재조명하고 있다. 부활 소망 앞에 진실된 증인으로 나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현대 예배서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자가 기독교 신앙을 풍성하게 경험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인류는 지역과 종교와 관계없이 죽음과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마주하는 의례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우리에게 맡겨진 바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말과 행동으로 애통해하는 자에게 다가가 정성으로 위로를 나누는 일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지고 유족들을 돌보도록 부름을 받았다.

**임종 시 사역**

목회자가 임종 시 함께 하거나, 임종 후 부름을 받았을 때, 유족들이 작별을 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례 예식의 일부를 발췌하여 유족들을 위한 기도와 축도를 포함한 간단한 임종 예식을 드릴 수 있다.

말은 간단명료하게 전하도록 한다. 악수나 포옹이 힘들어하는 유족들에게 더 큰 위로로 다가올 수 있다. 때로 목회자는 주변 사람들의 심정을 주의 깊게 헤아려 분별할 필요가 있다.

떠나기 전, 필요한 경우 목회자는 유족들에게 장례 준비를 도울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 장례사 교섭, 알맞은 관 확보, 친인척과 친구 그리고 교회에 부고 소식 전하기, 필요한 빈소와 문상 및 다과 준비와 같은 실질적인 일들을 도울 수 있는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훈련해 교회가 효과적으로 유족들을 돕도록 한다. 여러 방법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는 고인을 잃은 유족들을 돕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도록 한다.

**장례 예식 계획**

장례 예식 전 유족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목회자에게 필수이다. 목회자의 가장 큰 역할은 진정성 있는 위로를 전하는 것이다. 장례 예식의 세부 사항을 나누기 전, 유족들이 고인의 삶과 마지막 순간에 대해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 방문은 짧을 수 있으나, 서둘러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예식을 계획할 때, 유족들이 기독교 장례 예식의 구성에 익숙하지 않다면, 간단한 개요를 제공하도록 한다.

장례 예식의 장소와 시간을 가장 먼저 정하도록 한다. 교회 성도라면 장례 예식을 교회 건물에서 드리는 것을 추천하여도 좋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경배하는 장례 예식의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예식의 주목적은 성경 말씀의 선포이며, 추도사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헌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예식의 앞부분에 가족이나 친구가 낭독할 수 있다. 유족들에게 원하는 찬송이나 성구의 여부를 물어보도록 한다. 또한, 유족이 성경 봉독에 인도자로 섬길 수도 있다. 부모와 조부모를 잃은 젊은 사람의 경우, 섬김에 참여함으로 작별을 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목회자는 유족들이 귀하게 여기는 고인의 성품과 재능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도록 한다. 이 이야기는 감사 기도에 포함될 수 있다.

**방문 및 조문 예식**

임종과 장례 예식 사이에 친척과 친지들이 유족들을 찾아가 함께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며, 이에 관련된 자료는 장례 예식 예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장례 예식 진행**

**장소.** 기독교 장례 예식은 고인이 세례를 받고, 예배에 참석하며, 섬겼던 교회에서 거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목회자**

목회자(들)가(이) 교회의 대표로서 장례 예식의 올바른 순서와 내용을 담당하도록 한다. 목회자가 유가족들의 필요와 상황을 분별하여, 제시된 예식 순서를 지혜롭게 변경하며 활용하도록 한다. 친목 단체와 협회의 의례들은 장례 예식 외의 시간에 행하도록 한다. 군 장례 예식의 경우, 하관식 때 깃발 또는 나팔 예식을 포함할 수 있다. 지역 장례사들과 긴밀한 관계 역시 목회자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인사(Viewing)**

유가족들이 장례 예식에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공개하길 원한다면, 이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도록 한다. 장례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관을 닫는 것이 의례적이다.

**주보**

인쇄된 주보를 만들 여력이 없거나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장례 예식의 진행에 큰 도움이 된다. 예식이 익숙하지 않은 조문객과 참석자에게, 주보는 예식 순서와 회중 교독문, 인도자와 운구위원의 이름, 고인의 약력, 예식 후의 안내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관보 및 운구 행렬**

지역 전통마다 다르지만, 유구한 전통에 따르면, 시신을 교회로 안치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정중한 방법은 회중이 모인 후 교회 안으로 행렬이 입장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운구 행렬을 인도하며, 관과 함께 운구위원, 유가족 순으로 따르도록 한다.

어떤 회중은 교회 장례 예식에 사용할 관보를 준비해놓기도 한다. 짙은 검은색을 사용하기도 하나, 부활 신앙을 상징하는 의미로 흰 관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관보를 관에 씌움으로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관에 지나친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교회 입구에서 관에 관보를 씌우도록 한다. 예식 예문에 따라, 목회자가 입구에서 관을 맞이하며, 적절한 성경 말씀과 함께 이를 받고, 운구 행렬을 인도하도록 한다. 운구 행렬이 입장할 때 회중이 일어서 침묵 또는 시편이나 찬송을 부른다.

**관의 위치**

장소가 허락된다면, 관은 성찬대와 직각의 위치에 놓이도록 한다. 화장 후 유해를 받는 경우, 운구위원이 성찬대 앞 단상에 놓아 모든 성도가 잘 볼 수 있도록 한다.

**음악**

말씀을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음악도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한다. 유가족들이 요청을 들어주되,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며 주님 사랑을 향한 믿음에 관련된 찬송가가 우선이 되도록 한다.

**기도, 성경 구절, 설교**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자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다. 유족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와 목회자의 분별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예식이 될지, 원형에서 얼마나 조정해야 할지 정하도록 한다.

**신앙 고백**

설교 이후 기독교 신앙 고백으로 순서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장례 예식에 참석한 사람 중 다양한 기독교 전통의 배경을 가졌거나 신앙이 없는 경우도 있기에, 목회자는 신앙 고백문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적절한 선택이다. 이를 통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고백한다. 또한, 교회가 보편적으로 수렴하는 고백문이며, 대부분의 기독교인에게 알려져 있다. 사도신경이 내포하는 이미지나 연관성은 교회의 신앙에 뿌리를 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작용한다. 다른 종교를 속해 있거나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참석 인원을 구성하고 있다면, 순서지에 고백문을 기록해놓도록 한다. 이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중과 함께 고백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믿음으로 선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한다.

신앙 안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고백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산 믿음*(*Living Faith*)의 10장 또는 로마서 8장 구절을 참고할 수 있다. 때로는 찬양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성찬**

때로는 장례 예식에 성찬식에 대한 요청이 있을 수 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런 요청이 있을 시 수용하도록 한다. 장례 예식 참석자들이 다양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 예식 후 돌아오는 주일에 소속 공동체 안에서 고인을 언급하고 유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성찬 예식을 갖는 것이 좋다.

**폐회**

많은 경우, 장례 예식에 참석했던 사람 중 소수만 하관 예식에 참석한다. 폐회는 기도, 하관, 그리고 축도로 장례 예식의 매듭을 짓는다.

**운구 행렬**

운구 행렬은 목회자가 앞서서 인도하고 운구위원들이 관을 이동하며 유족들이 뒤를 따르도록 한다. 회중은 자리에서 일어선다. 목회자가 Nunc Dimittis를 인용하여 말하거나 회중이 함께 부를 수도 있다. 이는 회중이 사랑하는 성도를 떠나보내는 좋은 방법이다.

**하관 예식**

하관 예식은 장례 예식 전 또는 후에 드려질 수 있다. 이 예식은 길지 않게 간단히 행하도록 한다. 장례와 하관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길다면, 각 예식에 기도와 성경 구절을 추가하도록 한다.

**장례 후**

유족들은 장례 기간에는 많은 관심과 위로를 받게 되지만, 그 후 친구들과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금세 침묵과 외로움 속에 남겨지게 된다. 목회자는 장례 후에 유족들을 가까운 시일내에 방문하여 애도와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목회자는 다른 지원 방법이나 상담이 필요한지 결정한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회중이나 장로에게 알려 교회의 이름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